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8.11.26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1.7	1.5	-10.3	-16.4	8.6	8.6	0.9	0.9	2.3	2.3	
통신업종	2.0	1.8	4.5	20.4	7.9	7.9	0.9	0.9	3.4	3.4	
SK텔레콤	1.8	0.2	7.8	24.8	6.6	7.0	1.0	0.9	3.6	3.6	
KT	0.8	1.2	4.9	11.2	10.7	10.4	0.6	0.6	3.5	3.8	
LG유플러스	4.9	-5.0	-1.2	26.8	12.3	11.5	1.1	1.1	2.7	2.9	
AT&T	-2.5	-2.1	-10.0	-9.7	8.3	8.2	1.2	1.2	6.8	7.0	
Verizon	-0.7	3.9	7.0	20.9	12.5	12.5	4.4	3.7	4.1	4.2	
T-Mobile	-1.5	1.1	2.5	18.5	20.2	16.8	2.3	2.0	0.0	0.0	
Sprint	0.0	0.7	0.7	18.8	31.5	127.5	1.0	0.9	0.0	0.0	
NTT Docomo	0.6	-10.0	-8.9	-8.3	13.3	13.2	1.6	1.6	3.9	4.2	
KDDI	4.6	-8.5	-13.0	-11.4	11.1	10.1	1.7	1.5	3.5	3.9	
Softbank	-3.5	-0.1	-13.0	11.4	8.9	11.9	1.9	1.6	0.5	0.5	
China Mobile	-1.2	2.4	4.1	5.3	12.0	11.9	1.3	1.2	4.1	4.1	
China Unicom	-1.4	-1.1	-6.4	-21.9	27.5	17.6	0.7	0.7	1.5	2.4	
China Telecom	0.2	5.2	6.5	8.8	14.5	13.5	0.9	0.8	2.8	3.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1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3.7%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은 전주 대비 -0.8%p 하락하며 4주째 외국인 매도세 지속 KT 아현지사 통신국사에 화재가 발생하며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통신 장애 발생 국내 기관은 통신 3사 순매수, 외국인인 SK텔레콤, LG유플러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12월 1일 이동3사가 공동으로 5G 공식 상용화 선언 본격적인 5G 상용화는 내년 3월 예정이나,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시작한다는 점에 의의 5G 통신장비 발주와 실적 개선이 함께 나타나는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시기 KT 통신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4Q18 일회성 비용 발생 우려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5G 공식 상용화 선언

3 주간 뉴스

▶ KT아현지사 통신국사 화재...황창규 회장, 복구 만전 주문

(전자신문)

- 24일 KT 아현지사 내 화재 발생으로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통신 장애 발생
- 인터넷, 전화, 카드결제 등 장애 발생. 가복구에 1~2일, 완전 복구에 일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
- KT는 통신망 우회복구, 이동기지국 신속배치, 인력비상 근무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
- ⇒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 예정. 과거 SK텔레콤이 두 차례 통신 요금을 깎아준 사례 존재
- ⇒ 일각에서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KT의 마케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 국회,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재점화

(전자신문)

- 노동래 과방위 위원장과 이동 3사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입법 논의에 앞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
- 이동 3사는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 공감하나, 찬성 정도와 법제화 측면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의견
- 과기정통부는 신중한 입장. 입법 대신 시장자율 방식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연내 보고할 계획
- ⇒ 이어진 삼성전자와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대해 반대 의견 표명
- ⇒ 일부 이동사와 단말기 업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완전자급제 법제화가 난항을 겪을 전망

▶ 치고 나옴 IPTV... 점점 처지는 케이블TV

(파이낸셜뉴스)

- 6개월간 IPTV의 평균 가입자수는 유료방송시장의 46.05%, 케이블TV는 43.76% 차지
- 또한, IPTV와 케이블TV 사이의 가입자수 격차는 7개월만에 12만명에서 107만명으로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재편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 케이블TV는 ARPU 하락 지속되는 상황
- ⇒ 한편, 22일 유영민 장관은 통신사-케이블TV 합병에 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 표명
- ⇒ 시장 상황과 규제 여건이 호의적으로 흘러감에 따라 케이블TV 인수는 향후 가속화될 전망

▶ 美, 동맹국에 불매 동참 요구... 화웨이 "용인 안 돼" 강력 반발

(디지털데일리)

- WSJ는 22일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했다고 보도
- 여기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포함. 화웨이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 지원 늘리는 방안도 고려
- 한국화웨이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은 행동을 격려 및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반발
- ⇒ 한편, 외신은 한국 측과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사용 예정
- ⇒ 화웨이 장비 불매 움직임이 확산될 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및 공급사들의 수혜 예상

▶ 통신 3사, 5G 첫 커버리지 눈치싸움...왜?

(ZDNet Korea)

- 이동 3사는 5G 전파 송출을 열흘만 남겨놓았지만 아직 5G 커버리지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
- 이에 따라 투자 지출이 결정될 수 있어 5G 커버리지 계획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
- 서비스 지역이 지나치게 좁을 경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서비스 품질 역시 고려 사항
- ⇒ 통신사들은 경쟁사의 기지국 수나 기지국 설치 지역을 주시 중. 향후 유동적으로 대응할 전망
- ⇒ 다음달 5G 시작 시점에서는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망 구축 속도에 관심 필요

▶ 애플폰 "이동사 신규요금제 출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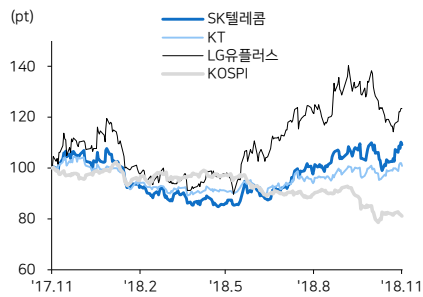
(디지털타임스)

- 과기정통부는 원천기 제2차관 주제로 애플통신사업자 9개 업체와 포스트타워에서 간담회 개최
- 애플은 업계는 R/S방식이 의무가 아니므로 이동사들이 망도매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이동3사 신규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즉시 도매제공, 19년도 도매대가 조기 결정 등을 요구
- ⇒ 이동사들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 민 차관은 애플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
- ⇒ 이동사들의 저가 요금제 출시로 인해 향후 애플폰의 경쟁력 약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84,000	20.2	15.0	15.6	1.2	1.3	3.0	2.8	4.0	4.2	6.1	5.8	16.8	14.1
	KT	30,200	7.0	20.9	21.2	1.2	1.2	0.6	0.7	4.2	4.3	2.5	2.5	6.0	5.9
	LG유플러스	16,100	6.2	10.8	11.1	0.8	0.8	0.5	0.5	2.3	2.4	3.8	3.6	10.1	9.8
미국	AT&T	29.4	213.7	173.9	185.4	31.4	35.5	24.0	26.1	56.5	60.8	6.9	6.4	13.3	11.4
	Verizon	58.6	242.3	130.9	132.2	29.3	30.8	18.8	19.8	47.4	48.5	7.5	7.3	38.7	32.3
	T-Mobile	67.1	56.9	42.6	45.4	5.5	5.9	2.8	3.4	12.1	12.9	7.1	6.7	11.8	12.6
	Sprint	6.1	25.0	32.4	33.2	2.6	2.7	5.5	0.2	11.1	12.3	5.1	4.6	14.1	0.6
일본	NTT Docomo	2,597	87.1	44.2	43.0	9.1	8.9	6.7	6.2	13.9	13.6	6.1	6.0	12.6	12.3
	KDDI	2,606	58.5	45.8	45.7	9.0	9.1	5.3	5.5	14.1	14.1	5.1	5.0	15.6	15.7
	Softbank	8,787	85.7	83.8	84.2	11.5	12.4	9.7	7.2	25.1	25.2	9.1	8.9	20.9	11.1
중국	China Mobile	75.9	198.6	108.1	110.3	17.2	16.9	16.7	16.8	40.0	40.8	3.3	3.2	11.4	10.8
	China Unicom	8.7	33.9	41.4	43.5	1.3	2.2	1.2	1.9	12.5	13.3	2.8	2.6	2.7	4.2
	China Telecom	4.1	42.1	54.8	57.0	4.1	4.5	2.9	3.1	15.2	15.8	3.4	3.3	6.1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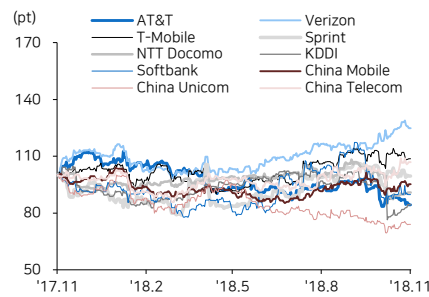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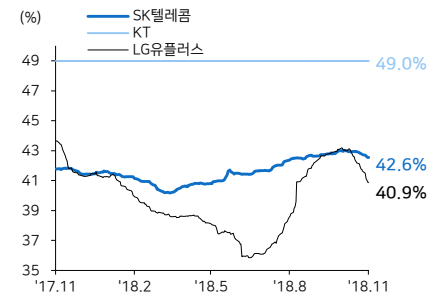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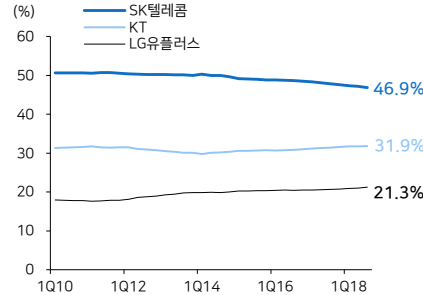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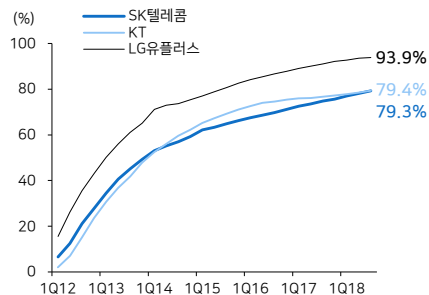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보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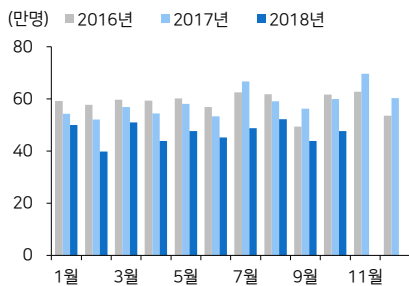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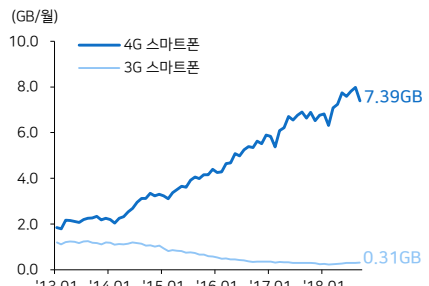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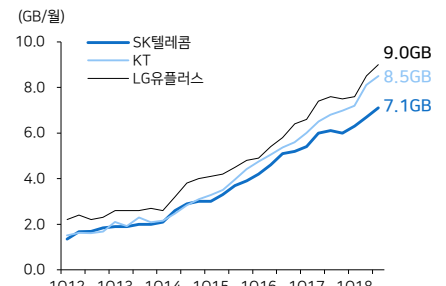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검토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26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중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26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1월 26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